

## [기획연재]

### 기독교 신앙과 입양 3

신원하 교수 / 2003 / 페이지 수: 2

#### IV. 고아에 대한 사랑과 돌봄의 명령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돌보신다. 아비 없는 이를 위해 공의를 행하시는 분(신 10:18)이고, 불드시는 하나님(시 146:9)이고, 도우시는 자(시 10:14)이시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고아와 과부를 제도적으로 돌볼 것을 명령하셨다(신 27:19).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 년마다 십일조를 모아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함께 나누어 주어야 했다(신 14:28~19, 26:12). 그리고 떨어져 남은 곡식과 포도열매를 과부와 고아가 취할 수 있도록 남겨 돌 것을 명령하셨다(신 24:19~22). 또한 한 개인의 경건의 수준은 그가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통해서 판단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사 10:2).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 규정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고아와 과부를 대하는 태도에 중요한 지침이 된다.

#### V 부모 됨의 진정한 의미

신약과 구약을 보면, 부모가 자녀를 낳았지만 조성하시고 마든 자는 하나님이다. 부모는 단지 아이를 세상에 내보내는 채널이고, 위탁하여 보호하는 청기지일뿐이다. 그렇다고 볼 때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부모는 입양부모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은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소유의 관계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도 말하지 않는다. 자녀는 결혼을 하면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부모를 떠나야만 한다고 가르친다. 부모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이를 낳아 더 큰 공동체에 내어 보내는 사람이다.

부모의 진정한 자격은 자녀와의 혈연관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자격과 가장 큰 의무는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 교회 공동체로, 이 세상으로 내어보내는 것이다.

윤리학자 워프하우스키(William. Werpehowski)는 기독교적 부모의 소명에 대한 적절한 시사점을 세례식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한다는 것이고, 예수그리스도를 자신의 부모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며 사는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부모도 자식을 세례 받게 할 때 그 자식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생각을 갖는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한 이런 신학적인 이해를 한다면 입양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입양한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 이 사회로 내보낸다면, 그 양부모 역시 부모의 본질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 VI. 결론 : 정리와 묵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고, 그리고 친아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은혜로 입양된 자녀이다”(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3문).

무조건적 헌신과 사랑을 동반하는 가족은 혈연관계여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오랫동안 지배적이었다. 한국교회도 유대 기독교의 혈통 주의적 사고와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입양을 꺼려왔다. 그러나 언약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다(갈 3:26).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입양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어야 하고 또 우리의 자녀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물론 입양은 단순한 구제 행위와 다르고, 입양을 하려면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과 희생의 정신이 충일해야 한다.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할지라도 사랑보다는 진할 수 없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이다. 언약과 가정의 핵심이 결코 혈연관계에 있지 않다는 사실, 고아를 특별히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주의 자녀 양육이 부모 됨과 결혼의 핵심 소명임을 깊이 새기면서, 고아들에게도 동일하게 가정을 제공해 주는 이 일에 앞장 서 나가야 할 것이다.

신원하 교수 /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 출처 : 온누리신문